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장 승 호 신안그린테크 대표·조 병 수 오픈테크놀러지 대표

친환경 농기계·무인PC 제어기술 선도

반도체 활용 제습기 세계 최초로 개발

캐나다·中 수출 활발 광엑스포 사업자 선정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상' 시상식이 지난달 29일 지방중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춘근 광주·전남중기청장, 조병수 오픈테크놀러지 대표, 장승호 신안그린테크 대표, 신항락 광주일보사 편집국장.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앞으로도 친환경 우수농기계 개발에 매진, 농업인들이 농산물 개방시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제조·판매업체인 (주)신안그린테크(순천시 인월동) 장승호(44) 대표는 "특히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원가절감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농기계를 생산, 농가소득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9년 설립된 신안그린테크는 2003년 구축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함께 친환경 농기계에 대한 품질과 신뢰확보에 앞장서면서 국내외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26개를 보유하게 됐다. 2005년 세계 최초로 반도체를 적용한 농용공기순환제습기를 개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은 것도 이같은 '기술의 힘'에서 나왔다.

농용공기순환제습기는 온·습도 센서로 실내의 밀폐된 공기를 상하좌우로 순환시켜 식물의 신진대사 촉진과 제습기능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 에어믹서는 실내 온도 편차를 줄여 에너지 절감, 탄소동화작용 촉진 등 효과를 지니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일본쪽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 이들 두 제품을 올해 말까지 2억여원 어치 수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린지중난방기를 비롯해 그린천정환풍기, 토양소독기, 배기열회수기 등도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농기계를 선도할 신안그린테크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5명의 직원을 보유한 신안그린테크의 매출은 2006년 15억600만원, 2007년 2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주)오픈테크놀러지(광주시 북구 오룡동)는 하드웨어 통제 및 무인 PC제어기술 분야에 독보적인 업체다.

2002년 언제 어디서나 쉽고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공중인터넷 PC인 KPI(Kiosk Public Internet)와 무인 공중인터넷 PC제어용 관리자 통제시스템인 CCS(Client Control System)을 출시했다.

이어 CCS와 통신해 무인기능을 가능케 하는 PHX모듈, 인터넷 자동감시시스템 WDS, 관리자가 원격지에서 PC의 상황을 통제하는 MCS 개발을 완료하는 등 100%에 가까운 공중인터넷 PC의 무인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조병수(41) 오픈테크놀러지 대표는 "이와 함께 WIS(무선인터넷과금시스템), i-LED(인터넷기반의 LED 전광판), DBP(인터넷원격제어보도) 등을 비롯해 태양광모니터링시스템, 무인건물자동화시스템(BAS) 등 주력제품들을 통해 국내외 원격제어시스템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설립된 짧은 이력 때문에 아직은 연매출이 20억원(수출 1만달러)에 불과하나, 오픈테크놀러지는 2006년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2007년 중국 상해지사를 설립, 내수와 함께 수출쪽에도 보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조 대표는 "이미 개발된 PNS(광신경시스템)을 LED신호조명시스템 체험홍보관 구축사업에 적용하고, 내년 광주세계광엑스포 기술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획기적인 매출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오늘부터 주유소 '상표 표시제 고시' 폐지

기름값 정말 내릴까

주유소協 "혼합판매로 ℓ당 40~50원까지 하락"

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 고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어도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고시가 없어지면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제품 공급 경쟁이 벌어져 고유가 시대에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유소들 역시 정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정유사들은 유통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인하 효과는 별로 없고 혼합 판매로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관주 소비자정보과장은 지난달 31일 "상표표시제 고시의 폐지에 따라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끝나면 혼합판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속계약 기간이 보통 1~5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시는 1992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정유소와 주유소의 배타적 거래를 사실상 조장했고 실질적인 품질 경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9월부터는 정유사에 대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돼 석유제품의 유통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혼합판매의 허용으로 주유소와 정유사의 전속계약이 줄어들어 정유사의 공급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기름값이 ℓ당 40~5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주유소가 혼합판매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섞어 파는 주유소가 많지는 않겠지만 전속 기간이 끝나거나 현재 정유사의 지원을 받지 않는 주유소는 혼합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을 정도로 박리다매를 하고 있다"며 "혼합판매를 통해 기름값을 내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호, 中 18홀 골프장 개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레저부문 계열사인 금호리조트는 중국 웨이하이시에 총 18홀 규모의 '웨이하이 포인트 오션사이드 골프&리조트'를 지난달 30일 개장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호리조트는 '웨이하이 포인트'를 세계 5대 명문골프장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지난 1년간 코스를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을 신축했다. 사진은 개장행사 모습. /연합뉴스

대기업 법인세 인하 1년 유예 촉구

한나라당, 中企는 올해부터 … 택시 부가세 100% 면제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내리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연기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또 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각종 감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1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회의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에서 낮은 세율 구간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으니까 당초 발표된대로 입법화를 하고, 높은 세율 구간만 1년 뒤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의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해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로 세부담을 낮추되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 미루자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

대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1년 유예해 생기는 재원을 바탕으로 화물차를 비롯한 운송업계의 구조조정과 서민경제 회복 지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택시업계에 세제 지원의 일몰 연장을 해주면서 부가세 50%를 추가로 경감해서 부가세 전액을 경감해 주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더 수렴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시업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50% 면제해 운전기사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말이면 세제특례의 시한이 만료된다.

/연합뉴스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중진공, 참가업체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5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미국 및 UN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갖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2~17일 광주시를 비롯해 전남·북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에 참여할 중소업체를 모집한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및 UN 조달시장 현황과 진출방안, 미국 MAS(Multiple Award Schedule·다수계약자 공급방식)제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가 안내된다.

문의 (062)600-3031.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중소제조업 가동률 두달 연속 60%대

정상 가동률 80%에 크게 못미쳐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이 2개월째 60%대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천408개사의 7월 중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P 떨어진 69.8%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6월(69.8%)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정상가동률(80% 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60%대를 유지하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조사통계팀장은 "수입원자재 가격의 시차반영과 일부 기업들의 여름휴가 실시에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감소가 겹치면서 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인쇄·기록매체복제업(61.1%), 가죽·가방·신발(64.7%), 목재 및 나무제품(65.4%) 등 11개 업종이 평균보다 낮은 가동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